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의 B형 간염에 관한 지식도 조사 연구

박성숙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 B형 간염, 치위생과 학생

1. 서론

인간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한 것은 B.C 2000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미 기원전의 의서에 황달병에 대한 기술이 보인다. 1934년 미국의 Blumberg에 의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B형 바이러스 감염은 그 경과 중에 간경화증과 간암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

B형 간염(Hepatitis B)의 원인이 되는 B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는 Hepadnaviridae family에 속하며 이중나선 DNA 형태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간에 급성 및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바이러스로서 괴사성 맥관염, 간섬유화, 간암의 주요원

인이다. HBV는 일차적으로 혈액과 혈액산물에서 발견되지만 정액, 눈물, 분변, 뇨, 질 분비물 및 타액과 같은 체액에서 발견된다²⁾.

B형 간염 항원의 양성률은 미국 0.1~0.3%, 유럽 0.1~0.32%, 일본 1.5%, 중동 5.0% 아프리카 5~10%, 동남아 5%, 대만 7.5~20%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³⁾ 우리나라의 경우에 HBV 보균자는 전 인구의 5~10% 정도에 이르는데,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이 일반인보다 표면항원(HBsAg) 양성률이 높게 나타난다.⁴⁾ 따라서 장차 치과 진료실에서 종사할 치위생과 학생들은 HBV에 대한 인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학교 실습 중에도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고 있으므로 B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본인의 HBV에 대한 표지자의 발현 양태를 알아야 하고, 또한 HBV에 대한 항체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

야 할 것이다⁵⁾.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만연지역으로써 전 국민의 7~8%가 HBV 만성보균자이며 남·녀 비는 3:1 정도로 남자에게 더 흔하다. HBV의 전염경로는 비경구적 감염, 성관계 등 긴밀한 신체적 접촉이 대부분이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B형 바이러스 유행 지역에서는 모체의 혈액이나 분비물이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출산 시 혹은 출산 직후 자녀에게 전염되는 수직감염이 중요한 경로로 알려져 있다⁶⁾.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주로 주산기의 수직 감염, 성적접촉, 혈액, 약물남용자에서 오염된 바늘을 통해 전염된다. 환자와 외과 의사나 치과의사 간의 직접 접촉,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되고 신장투석 기계나 면도기, 타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염된다. 따라서 HBV에 오염된 혈액을 제거하는 기술과 HBV에 오염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멸균을 통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대중과, 의료인에게 전파경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접촉을 예방할 수 있다⁷⁾.

B형 간염 감염의 경과를 보면 최초 감염(잠복기는 6개월까지)후 그중 50%는 모호한 복부의 불쾌감, 근육통, 설사, 구역질, 저도의 발열 등이 포함되는 임상적인 징후들을 갖고 있는 환자이고 그 중 30%는 황달의 증거가 있다. 이 단계 동안에 그리고 징후들이 나타나기 한 달 전에 환자는 감염성이 있다. 또 다른 50%의 환자는 징후가 없고 감염성은 있다. 감염환자들의 10%는 보균자가 되고 보균자의 25%가 경화증으로 진행되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 발병된다. 보균자는 간암이 발병할 기회가 훨씬 높다⁸⁾.

HBV 예방접종 절차는 사전검사 B형 간염 표면항원이나 항체가 양성인 것으로 알려진 즉, 항-HB농도가 100iu/i 이상인 사람에게는 백신을 투여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단지 6.7%의 백신 수용자만이 이미 면역이 되었으므로, 사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또는 비용 효율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 예방주사 백신은 매우 효능이 높아 95%까지 혈청변환이 일어난다. 예방 투약법은, 첫 번째 투약-택한 날짜, 두 번째 투약-1개월 뒤에, 세 번째 투약-첫 번째 투약 후 6개월로 이루어져야한다⁸⁾.

추가접종 투약 면역의 존속기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3~5년이며 5년 후에 단지 75%의 사람만이 충분한 항체 농도를 갖고 있다^{9,10)}.

치과진료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 B형 간염은 많이 알려진 질환이고 치과진료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B형 감염에 대한 위험도는 알고 있으나 일반적인 지식과 세부적인 내용들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치과진료실에 근무할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도를 조사하여, B형 간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치과진료실에서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을 버리고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 1학년 134명, 2학년 124명, 3학년 102명, 총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문항은 강¹¹⁾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B형 간염의 심각성 2문항, 병의 전파에 관한 인식 9문항, B형 간염의 감염경로 5문항, 예방 8문항, 일반적인 지식 6문항, 총 30문항으로 작성되었다.

2.3 분석방법

설문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의 문항별 지식정도는 B형 간염의 심각성,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지식, B형 간염의 감염경로, B형 간염의 예방, 일반적인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학년별 지식의 정답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성적

3.1 B형 간염에 대한 영역별 지식

3.1.1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지식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지식결과는 표 1과 같다.

“B형 간염은 생명을 위협 한다.”의 항목에서 정답률은 전체 361명중 284명(78.7%)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77명(21.3%)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라도 B형 간염에 걸리기 쉽다”의 항목에서는 291명(80.6%)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70명(19.4%)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3.1.2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지식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지식결과는 표 2와 같다.

“B형 간염은 성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 정답률은 361명 중 236명(65.4%)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125명(34.6%)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환자가 임신을 하면 태아는 100% 간염환자이다.”의 항목에서는 217명(60.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144명(39.9%)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환자가 출산 시 발생하는 혈액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는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260명(72.0%)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01명(28.0%)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 “B형 간염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238명(65.9%)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23명(34.1%)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 환자에게 수혈을 받으면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315명(87.3%)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46명(12.7%)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의 항목에서는 304명(84.2%)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57명(15.8%)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76명(21.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표 1.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지식

| 항 목 | 정답 명(%) | 오답 명(%) | 전체 명(%) |
|---------------------|---------------|--------------|--------------|
| B형 간염은 생명을 위협한다. | 284 (78.7) | 77 (21.3) | 361 (100) |
| 누구라도 B형 간염에 걸리기 쉽다. | 291 (80.6) | 70 (19.4) | 361 (100) |

표 2.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지식

| 항 목 | 정답 명(%) | 오답 명(%) | 전체 명(%) |
|---|---------------|---------------|--------------|
| B형 간염은 성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 236 (65.4) | 125 (34.6) | 361 (100) |
| B형 간염환자가 임신을 하면 태아는 100% 간염환자이다. | 217 (60.1) | 144 (39.9) | 361 (100) |
| B형 간염 환자가 출산 시 발생하는 혈액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아기가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 | 260 (72.0) | 101 (28.0) | 361 (100) |
| B형 간염 균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다. | 238 (65.9) | 123 (34.1) | 361 (100) |
| B형 간염 환자에게 수혈을 받으면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 | 315 (87.3) | 46 (12.7) | 361 (100) |
|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 | 304 (84.2) | 57 (15.8) | 361 (100) |
| B형 간염은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 | 76 (21.1) | 285 (78.9) | 361 (100) |
| B형 간염 환자와 식사를 같이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 | 75 (20.8) | 286 (79.2) | 361 (100) |
| B형 간염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 | 86 (23.8) | 275 (76.2) | 361 (100) |

285명(78.9%)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환자와 식사를 같이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의 항목에서는 75명(20.8%)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286명(79.2%)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

에서는 86명(23.8%)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275명(76.2%)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3.1.3 B형 간염의 감염경로에 관한 지식

B형 간염의 감염경로에 관한 지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B형 간염의 감염경로에 관한 지식

| 항목 | 정답 명(%) | 오답 명(%) | 전체 명(%) |
|--|---------------|---------------|--------------|
| B형 간염환자와 악수를 하면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 | 42 (11.9) | 318 (88.1) | 361 (100) |
|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 244 (67.6) | 117 (32.4) | 361 (100) |
|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을 발병시킨다. | 144 (39.9) | 217 (60.1) | 361 (100) |
| B형 간염은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 188 (52.1) | 173 (47.7) | 361 (100) |
| B형 간염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 258 (71.5) | 103 (28.5) | 361 (100) |

“B형 간염 환자와 악수를 하면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361명 중 42명(11.9%)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318명(88.1%)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의 항목에서는 244명(67.6%)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17명(32.4%)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을 발병 시킨다.”의 항목에서는 144명(39.9%)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217명(60.1%)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의 항목에서는 188명(52.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73명(47.7%)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의 항목에서는 258명(71.5%)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03명(28.5%)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3.1.4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지식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지식

결과는 표 4와 같다.

“B형 간염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361명 중 236명(65.4%)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25명(34.6%)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의 항목에서는 218명(60.4%)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43명(39.6%)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있다.”의 항목에서는 195명(54.0%)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66명(46.0%)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없다.”의 항목에서는 229명(63.4%)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32명(36.6%)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 균은 소독에 의해 죽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199명(55.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62명(44.9%)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멸균에 의해 죽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225명(62.3%)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36명(37.7%)이 잘못된 지식을

표 4.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지식

| 항 목 | 정답 명(%) | 오답 명(%) | 전체 명(%) |
|---|---------------|---------------|--------------|
| B형 간염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 236 (65.4) | 125 (34.6) | 361 (100) |
| B형 간염은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 218 (60.4) | 143 (39.6) | 361 (100) |
| B형 간염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있다. | 195 (54.0) | 166 (46.0) | 361 (100) |
| B형 간염은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없다. | 229 (63.4) | 132 (36.6) | 361 (100) |
| B형 간염 균은 소독에 의해 죽을 수 있다. | 199 (55.1) | 162 (44.9) | 361 (100) |
| B형 간염 균은 멸균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 225 (62.3) | 136 (37.7) | 361 (100) |
| 대부분의 B형 간염 백신은 기본접종으로 최소 3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한다. | 291 (80.6) | 70 (19.4) | 361 (100) |
| B형 간염은 기본접종 후 정기적인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78 (77.0) | 83 (23.0) | 361 (100) |

표 5. B형 간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 항목 | 정답 명(%) | 오답 명(%) | 전체 명(%) |
|--|---------------|---------------|--------------|
|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는다. | 285 (78.9) | 76 (21.1) | 361 (100) |
| B형 간염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를 만들 수 있다. | 289 (80.1) | 72 (19.9) | 361 (100) |
| B형 간염은 B형 혈액형만 걸리는 질병이다. | 75 (20.8) | 286 (79.2) | 361 (100) |
| B형 간염 보균자와 B형 간염환자는 같은 의미이다. | 171 (47.4) | 196 (52.6) | 361 (100) |
|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사람은 평생 항체생성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 264 (73.1) | 97 (26.9) | 361 (100) |
|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제중 사용가능한 약제는 인터페론이다. | 51 (14.1) | 310 (85.9) | 361 (100) |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B형 간염 백신은 기본접종으로 3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한다.”의 항목에서는 291명(80.6%)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70명(19.4%)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기본접종 후 정기적인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의 항목에서는 278명(77.0%)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83명(23.0%)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3.1.5 B형 간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은 표 5와 같다.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B형 간염에 걸

리지 않는다.”의 항목에서는 361명 중 285명(78.9%)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76명(21.1%)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를 만들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289명(80.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72명(19.9%)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은 B형 혈액형만 걸리는 질병이다.”의 항목에서는 75명(20.8%)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286명(79.2%)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보균자와 B형 간염환자는 같은 의미이다.”의 항목에서는 171명(47.4%)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196명(52.6%)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사람은 평생

표 6.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학년별 지식 정도

| 항목 | 1년 명(%) | | 2학년 명(%) | | 3학년 명(%) | | x ² (df) | p |
|---------------------|--------------|--------------|---------------|--------------|--------------|------------|------------------------|------|
|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 |
| B형 간염은 생명을 위협한다. | 83 (61.9) | 52 (38.1) | 108 (86.4) | 17 (13.6) | 93 (91.2) | 9 (8.8) | 36.3 (2) | .000 |
| 누구라도 B형 간염에 걸리기 쉽다. | 91 (67.0) | 43 (32.1) | 104 (83.2) | 21 (16.8) | 96 (94.1) | 6 (5.8) | 26.26 (2) | .000 |

* p<.05 ** p<.01 *** p<.001

항체생성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의 항목에서는 264명(73.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97명(26.9%)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 중 사용하는 약제는 인터페론이다.”의 항목에서는 51명(14.1%)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310명(85.9%)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3.2 B형 간염의 학년별 지식 정도

3.2.1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학년별 지식결과는 표 6과 같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B형 간염은 생명을 위협한다.”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3학년이 91.2%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고, 2학년 86.4%, 1학년이 6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누구라도 B형 간염에 걸리기 쉽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 .001$), 3학년이 94.1%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으며, 2학년, 83.2%, 1학년이 6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B형 간염의 심각성에 대한 학년별 지식은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2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는 표 7과 같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B형 간염은 성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표 7.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 항 목 | 1학년 명(%) | | 2학년 명(%) | | 3학년 명(%) | | χ^2 (df) | p |
|---|---------------|--------------|---------------|---------------|---------------|--------------|------------------|------|
|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 |
| B형 간염은 성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 70 (52.2) | 64 (47.8) | 84 (67.2) | 41 (32.8) | 82 (80.4) | 20 (19.6) | 20.56 (2) | .000 |
| B형 간염환자가 임신을 하면 배속의 아기는 100% 감염환자이다. | 82 (61.2) | 52 (38.8) | 75 (60.0) | 50 (40.0) | 60 (58.8) | 42 (41.1) | 0.137 (2) | .934 |
| B형 간염 환자가 출산 시 발생하는 혈액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아기가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 | 86 (64.2) | 48 (35.8) | 87 (69.6) | 38 (30.4) | 87 (85.3) | 15 (14.7) | 13.37 (2) | .001 |
| B형 간염 균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다. | 73 (54.5) | 61 (45.5) | 81 (64.8) | 44 (35.2) | 84 (82.4) | 18 (17.6) | 20.14 (2) | .000 |
| B형 간염 환자에게 수혈을 받으면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 | 103 (76.9) | 31 (23.1) | 112 (89.6) | 13 (10.4) | 100 (98.7) | 2 (2.0) | 24.49 (2) | .000 |
|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 | 95 (70.9) | 39 (29.1) | 111 (88.8) | 14 (11.2) | 98 (96.1) | 4 (3.9) | 30.6 (2) | .000 |
| B형 간염은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 | 41 (30.6) | 93 (69.4) | 21 (16.8) | 104 (83.2) | 14 (13.7) | 88 (86.3) | 11.9 (2) | .002 |
| B형 간염 환자와 식사를 같이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 | 38 (28.4) | 96 (71.0) | 22 (17.6) | 103 (82.4) | 15 (14.7) | 87 (85.3) | 7.73 (2) | .002 |
| B형 간염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 | 48 (35.8) | 86 (64.2) | 24 (19.2) | 101 (80.8) | 14 (13.7) | 88 (86.4) | 17.83 (2) | .000 |

* $p < .05$ ** $p < .01$ *** $p < .001$

차이를 보였다($p < .001$). 3학년이 80.4%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으며, 2학년이 67.2%, 1학년이 5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환자가 임신을 하면 태아는 100% 간염환자이다.”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학년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60.0%, 3학년이 5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 환자가 출산 시 발생하는 혈액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아기가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학년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69.6%, 1학년이 6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 균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학년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64.8%, 1학년 5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 환자에게 수혈을 받으면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학년이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89.6%, 1학년 7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학년이 9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88.8%, 1학년이 7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1학년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16.8%, 3학년이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 환자와 식사를 같이하면 B형 간염에 걸린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1학년이 28.4%, 2학년 17.6%, 3학년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1학년이 35.8%, 2학년 19.2%, 3학년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B형 간염의 전파에 대한 인식의 지식정도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B형 간염의 감염경로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B형 간염의 전파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는 표 8과 같다.

표 8. B형 간염의 감염경로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 항목 | 1학년 명(%) | | 2학년 명(%) | | 3학년 명(%) | | χ^2 (df) | p |
|--|---------------|---------------|--------------|---------------|--------------|---------------|------------------|------|
|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 |
| B형 간염환자와 악수를 하면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 | 28 (20.9) | 106 (79.1) | 14 (11.2) | 111 (88.8) | 1 (1.0) | 101 (99.2) | 21.98 (2) | .000 |
|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 87 (64.9) | 47 (35.1) | 80 (64.0) | 45 (36.0) | 77 (75.5) | 25 (24.5) | 4.076 (2) | .130 |
|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을 발병시킨다. | 70 (52.2) | 64 (47.8) | 47 (37.6) | 78 (62.4) | 27 (26.5) | 75 (73.5) | 16.45 (2) | .000 |
| B형 간염은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 93 (69.4) | 41 (30.6) | 50 (40.0) | 75 (60.0) | 45 (44.1) | 57 (55.9) | 20.01 (2) | .001 |
| B형 간염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 102 (76.1) | 31 (23.9) | 87 (69.6) | 38 (30.4) | 69 (67.6) | 33 (32.4) | 2.366 (2) | .306 |

* $p < .05$ ** $p < .01$ *** $p < .001$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B형 간염환자와 악수를 하면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1학년이 20.9%, 2학년이 11.2%, 3학년, 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학년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이 64.9%, 2학년이 6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을 발병시킨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1학년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37.6%, 3학년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1학년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이 44.1%, 2학년이 4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69.6%, 3학년이 6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4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는 표 9와 같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B형 간염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학년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66.4%, 1학년이 6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의 항목에서는 2학년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학년 61.8%, 1학년 5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있다.”의 항목에서는 3학년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54.4%, 1학년 47.0%로 가장 낮

표 9.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 항목 | 1학년 명(%) | | 2학년 명(%) | | 3학년 명(%) | | χ^2 (df) | p |
|---|--------------|--------------|---------------|--------------|--------------|--------------|------------------|------|
|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 |
| B형 간염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 83 (61.9) | 51 (38.1) | 80 (66.4) | 45 (36.6) | 73 (71.6) | 29 (28.4) | 2.531 (2) | .282 |
| B형 간염은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 72 (53.7) | 62 (46.3) | 83 (66.4) | 42 (33.0) | 63 (61.7) | 39 (38.2) | 4.452 (2) | .108 |
| B형 간염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있다. | 63 (47.0) | 71 (52.9) | 68 (54.4) | 57 (45.6) | 64 (62.7) | 38 (37.2) | 5.781 (2) | .056 |
| B형 간염은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없다. | 71 (53.0) | 63 (47.0) | 77 (61.6) | 48 (38.4) | 81 (79.4) | 21 (20.5) | 29.55 (2) | .000 |
| B형 간염 균은 소독에 의해 죽을 수 있다. | 97 (72.4) | 37 (27.6) | 71 (56.8) | 54 (43.2) | 31 (30.4) | 71 (69.6) | 41.50 (2) | .000 |
| B형 간염 균은 멸균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 64 (47.8) | 70 (52.2) | 73 (61.6) | 48 (38.4) | 84 (82.4) | 18 (17.6) | 29.55 (2) | .000 |
| 대부분의 B형 간염 백신은 기본접종으로 최소 3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한다. | 87 (64.9) | 47 (35.1) | 109 (87.2) | 16 (12.8) | 95 (93.1) | 7 (6.9) | 34.80 (2) | .000 |
| B형 간염은 기본접종 후 정기적인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90 (67.2) | 44 (32.8) | 97 (77.6) | 28 (22.4) | 91 (89.2) | 11 (10.7) | 15.94 (2) | .000 |

* $p < .05$ ** $p < .01$ *** $p < .001$

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없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학년이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61.6%, 1학년 5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 균은 소독에 의해 죽을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1학년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56.8%, 3학년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멸균에 의해 죽을 수 있다.”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학년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61.6%, 1학년 4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B형 간염 백신은 기본 3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한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학년이 93.1%, 2학년 87.2%, 3학년 6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기본접종 후 정기적인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학년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77.6%, 1학년 6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B형 간염의

예방에 대한 학년별 지식정도는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5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는 표 10과 같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는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학년이 9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82.4%, 1학년 6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를 만들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3학년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81.0%, 1학년 6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은 B형 혈액형만 걸리는 질병이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1학년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18.4%, 3학년 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표 10.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학년별 지식정도

| 항 목 | 1학년 명(%) | | 2학년 명(%) | | 3학년 명(%) | | x ² (df) | p |
|--|--------------|---------------|---------------|---------------|--------------|--------------|------------------------|------|
|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정답 | 오답 | | |
|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는다. | 90 (67.2) | 44 (32.8) | 103 (82.4) | 22 (17.6) | 92 (90.2) | 10 (9.8) | 19.85 (2) | .000 |
| B형 간염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를 만들 수 있다. | 90 (67.2) | 44 (32.8) | 102 (81.0) | 23 (18.4) | 97 (95.1) | 5 (4.9) | 28.58 (2) | .000 |
| B형 간염은 B형 혈액형만 걸리는 질병이다. | 42 (31.3) | 92 (68.7) | 23 (18.4) | 102 (81.6) | 10 (9.8) | 92 (90.2) | 16.98 (2) | .000 |
| B형 간염 보균자와 B형 간염 환자는 같은 의미이다. | 79 (59.0) | 55 (41.0) | 54 (43.2) | 71 (56.8) | 38 (37.3) | 64 (62.7) | 12.27 (2) | .002 |
|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사람은 평생 항체생성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 83 (61.9) | 51 (38.1) | 97 (77.0) | 28 (22.4) | 84 (82.4) | 18 (17.6) | 14.22 (2) | .001 |
|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중 사용 가능한 약제는 인터페론이다. | 20 (14.9) | 114 (85.1) | 17 (13.6) | 108 (86.4) | 14 (13.7) | 88 (86.3) | .113 (2) | .945 |

* p<.05 ** p<.01 *** p<.001

간염 보균자와 B형 간염 환자는 같은 의미이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1학년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43.2%, 3학년 37.3%로 나타났다.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평생 항체생성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의 항목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학년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77.0%, 1학년 6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 중 사용가능한 약제는 인터페론이다.”의 항목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이 13.7%, 2학년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년별 지식정도는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종합 및 고안

치과진료실에서 감염방지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치과 진료진의 구성원은 치과계에서 중요한 감염 전염의 지식과 질병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⁸⁾. 이에 본연구자는 B형 간염의 지식도를 분석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보건교육자료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B형 간염에 대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지식정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심각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3학년 92.6%, 2학년 84.8%, 1학년 64.4% 순으로 정답률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증가 할수록 B형 간염의 심각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B형 간염은 생명을 위협 한다”가 361 명중 77명(21.3%)으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항목에서는 3학년

60.3%, 2학년 54.8%, 1학년 52.7% 순으로 학년이 증가 할수록 B형 간염의 전파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B형 간염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하면으로써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288명(79.2%)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¹³⁾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의 연구에서 “음식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에 50%를 답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B형 간염의 전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B형 간염 환자에게 수혈을 받으면 B형 간염에 걸린다.”의 항목에서는 304명(84.2%)이 높은 정답률을 보여 수혈에 대한 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강⁶⁾의 연구에서 87.25%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형 간염의 경로에 대한 항목에서는 1학년 56.7%, 2학년 44.8%, 3학년 42.9%의 정답률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증가 할수록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항목에서는 B형 간염 환자와 악수를 하면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가 318명(88.1%)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혈액 성분으로부터 감염된다. 5세 이하 때의 감염에서는 바이러스의 지속적 감염자 즉 보균자가 되고 그 중 10% 정도는 만성 감염으로 발전하고, 나머지는 주로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으나 간은 정상이며 평생 아무 일 없이 지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기타 면역적 상태의 원인으로 만성 활동성 간염이 유발될 수도 있다.¹⁾에서 B형 간염은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B형 간염 경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으로 사료된다.

B형 간염의 예방에 대한 항목에서는 3학년 71.3%, 2학년 66.5%, 1학년 58.4%로 학년이 증가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B형 간염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있다”가 46%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B형 간염의 이상적인 치료는 질환의 인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 바이러스 항원의 제거와 항체의 생성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 간염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원인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영양과 안정을 비롯한 보조적인 유지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 하겠다⁵⁾. “대부분의 B형 간염 백신은 기본 접종 최소 3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한다”의 항목에서는 80.6%의 B형 간염의 예방항목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B형 간염 백신에 대한 면역 기간을 대략 3~5년 두고 있어 5년 후 75%의 사람만이 충분한 항체 농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3회 완전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항체 형성 여부 역시 3회 완전 접종을 마친 후 마지막 주사한 후 2~4개월에 항체 반응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지식의 항목에서는 3학년 54.7%, 2학년 52.6%, 1학년 59.7%로 학년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중 사용 가능한 약제는 인터페론이다”에서 85.9%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여 B형 간염의 치료제에 대하여서는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감염경로에 대한 항목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정확한 감염경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전염병 및 기타 질환에 관하여 학생들의 앎의 질이 향상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앞으로 치과임상에 근무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이 B형 간염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간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의료 종사자들 중 약 600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입원하고 2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B형 간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B형 간염에 대한 개인별 항체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멸균 소독관리로 교차 감염 또한 없애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일반적인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 1학년 134명, 2학년 124명, 3학년 102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B형 간염에 관한 지식정도를 B형 간염의 심각성, 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 감염경로, B형 간염의 예방, 일반적인 지식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형 간염의 심각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79.6%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20.3%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92.6%, 2학년 84.8%, 1학년 84.4%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병의 전파에 관한 항목에서는 55.6%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44.3%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60.3%, 2학년 54.8%, 1학년 52.7%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B형 간염의 경로에 관한 항목에서는 48.6%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51.4%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56.7%, 2학년 44.8%, 3학년 42.9%로 학년이 낮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B형 간염의 예방에 관한 항목에서는 64.7%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35.3%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71.3%, 2학년 66.5%, 1학년 58.4%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항목에서는 52.4%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47.6%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54.7%, 2학년 52.6%, 1학년 50.7%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교교육과 임상교육에서 B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1. 정태호. B형 바이러스 간염 경과와 치료. 서울:현문사;2003:11.
2. 정원균, 강은주, 유미숙 외 9인. 치과감염관리학. 서울:나래출판사;2002:68.
3. Szmuness W.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the epidemiology of hepatitis B. Am J Path 1975;81:629.
4. 윤대용, 유주현. 모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B형 간염 항원의 양성율 및 양전율에 관한 조사. 가정의학회지 1989;10(12):17-23.
5. 강은주, 신상희, 장선희. 치위생과 학생들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지자와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2;15(2):183-191.
6. 한철주.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 대한소화기학회 총서2. 서울:군자출판사;2005:41-52.
7. 고재성.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 대한소화기 총서2. 서울:군자출판사;2005:377-390.
8. 피터 R 우드. 치과계에서의 교차감염방지. 서울:고문사;1998:7-32.
9. Jacobsen I.M, and Dines, L. Viral Hepatitis vaccines. Ann. Rev. Med 1985;37:241-61.
10. Scully, C. Hepatitis B immunisation of dental students in 14 UK dental schools. Br.Dent J 1989;166:360.
11. 강현숙. 치위생과 학생들의 AIDS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4;4(2):135-149.
12. 현대구강연구회. 감염예방과 치료 요양식. 서울:太乙出版社;2006:17-19.
13. 정규원.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고시적치료. 대한소화기학회 총서2. 서울:군자출판사; 1998:137-145.

| |
|----------|
| Abstract |
|----------|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of hepatitis B

Sung-Suk Park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 Hepatitis B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of dental hygiene students about hepatitis B including its seriousness, dissemination, infection route and prevention in an effort to lay the foundation for dental hygiene health education geared toward dental hygiene students who were going to work in clinical fiel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4 dental hygiene freshmen, 124 sophomores and 102 juniors in some reg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April 14, 2008. An analysis of frequency and X²-test were performed through SPSS 12.0 program.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1. As for the seriousness of hepatitis B, by academic year the rates of the juniors, sophomores and freshmen who had a correct knowledge stood at 92.6 percent, 84.8 percent and 84.4 percent respectively. Thus, the students were better knowledgeable with academic year.
2. As for dissemination of hepatitis B, by academic year the rates of the juniors, sophomores and freshmen who had a correct knowledge stood at 60.3 percent, 54.8 percent and 52.7 percent respectively. Thus, the students were better knowledgeable with academic year.
3. As for infection route, by academic year the rates of the juniors, sophomores and freshmen who had a correct knowledge stood at 42.9 percent, 44.8 percent and 56.7 percent respectively. Thus, the students were lower knowledgeable with academic year.
4. As for prevention of hepatitis B, by academic year the rates of the juniors, sophomores and freshmen who had a correct knowledge stood at 71.3 percent, 66.5 percent and 58.4 percent respectively. Thus, the students were better knowledgeable with academic year.

5. As for general knowledge of hepatitis B by academic year the rates of the juniors, sophomores and freshmen who had a correct knowledge stood at 54.7 percent, 52.6 percent and 50.7 percent respectively. Thus, the students were better knowledgeable with academic year.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many of the students gave the right answers to the questions about the seriousness and prevention of hepatitis B, and that the rate of the correct answers about the route of dissemination was lowest. Accordingly, students should be taught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hepatitis B to help provide appropriate preventive treatment and take proper measures.

접수일-2008. 3. 17 수정일-2008. 4. 7 게재확정일-2008. 4. 21